광주시 공공기관 직원 부적정 채용 수두룩

정보문화진흥원 등 심사기준 안 지키고 가산점 잘못 적용
시 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3명 징계·9건 행정 조치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3일 "공공기관 채용 관련 특정감사 결과, 채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 1명은 주의, 2명은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행정상 조치는 주의 5건, 개선 4건이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일반직 6급 직원 1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심사 시 세부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장애인 우대 가산점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카진흥원은 무기계약직 3명을 채용하면서 일부 서류심사표에 심사위원의 서명이 누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했다. 또 감사위는 서류심사에서 평가가 어려운 직무수행, 자질, 역량 등을 심사 항목에 넣어 채용의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업무직 19명을 채용하면서 일부 면접시험 표에 면접위원의 서명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면접위원 3명 중 2명이 외부 위원이 아닌 공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포함해 공정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이 밖에 경제고용진흥원은 일반직 직원(3명)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유공자 가점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18기념재단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자격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광주문화재단은 근무 중인 직원들이 신규 채용에 대거 응시했음에도 같은 재단 관계자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재단 근무사실 등을 심사위원들에게 노출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이날 광주복지재단의 각종 비리와 부당행위를 확인했으며, 직원 2명을 계약 해지하고 5명은 훈계 1명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상 5건은 주의, 1건은 시정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임기제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는 '정년(만 60세)을 넘어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당시 63세인 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승진·전보 인사에서도 인사 운영 방향과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사를 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복지재단 산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 공유재산인 매점·자판기 운영을 실제 임대 계약자가 아닌 다른 개인이 하기도 했다. 특히, 한 직원은 회의 중 상사와 언쟁을 벌이고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상의 신년 인사회 광주상공회의소는 3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600여명의 참석자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해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감사 거부' 나주시 부당인사 등 무더기 적발

가축분뇨 관리 태만 등 53건…33명 신분상 조치 요구

공무원노조가 감사를 거부해 파문이 일었던 나주시의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 행정행위 80여건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 종합감사 결과 모두 53건을 적발해 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6억80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함께 요구했다. 30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66억5200만원을 들여 건립한 나주 영상테마파크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지 복구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용승인이 10개월이나 지연됐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대해 6차례나 변경계약을 하면서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기존 화장실을 보수·재사용해 이동식화장실을 신규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도 구입해 8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스톤 아트월로 제작해야 할 조형물을 스테인리스 아트월로 시공한 것을 확인하고도 준공 처리하기도 했다.

부당 인사도 적발됐다. 시설직 5급 승진심사 과정에서 승진 후보자 2위를 직무대리 발령 후 1위보다 먼저 5급 승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1위가 2위보다 4개월 늦게 승진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식 본행사와 D-1년 기념음악회를 추진하면서 행사대행용역으로 통합발주하지 않고 과업별로 분할 수의계약(21건, 2억8700만원)해 4000여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나주 혁신도시 인근 주민의 민원을 불렀던 가축분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2018년 총 점검 대상사업장 7574곳 중 무려 6619곳(87.4%)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 가축분뇨시설 관리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

지역특산품인 나주 배를 이용한 막걸리를 개발한다며 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막걸리를 생산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됐다.

나주시에 대한 전남도의 이번 종합감사는 나주시 공무원노조가 도 감사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선을 끌었다. 감사 거부 파문은 신안군 공무원노조의 감사 거부로까지 이어졌지만, 감사는 예정대로 이뤄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다른 방식으로 나주시를 감사하지 않았다. 법과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등 4명 개방형 공모

공무원노조 광주지부 반발

광주시가 일부 국·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민주인권평화국장 등 4명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가 개방형 직위 공모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주인권평화국장·노동협력관·대변인·문화예술회관장 등 4개 자리에 대한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3급 부이사관 상당인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승화 전략 수립 및 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을 맡는다. 4급 서기관급인 노동협력관은 비정규직 고용 개선, 노동센터·비정규직센터 지원 등 노동정책을 총괄한다.

4급 서기관급인 문화예술회관장은 시립예술단·공연 관리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반을 맡는다. 대변인도 4급 서기관급으로 시정시책 언론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원서접수는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4일이다. 2차 적격성 심사는 30∼31일 예정돼 있으며 서류와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자질을 검증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초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개방형 직위의 임기는 모두 2년이며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6일 시 혁신정책관실에 '개방형 직위 공모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채용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정보공개 시민모니터단 본격 활동

광주시 정보공개 시민모니터단이 4일 오후 3시 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활동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정보공개 시민모니터단은 지난해 11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11명으로 구성됐다. 분기마다 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전정보 공표목록 755개에 대해 정보공개가 적정한지, 공개 시기가 맞는지 등을 점검하고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점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사전정보 공표제도는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예산집행 사항 등을 시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표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 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표되는 주요 항목은 취업, 물가, 교통, 복지, 소방, 안전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과 업무추진비, 예결산 기금운용, 계약정보,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사업정보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공개한 675개와 새로 발굴한 80개를 포함 총 755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시민모니터단 활동보고회를 열어 모니터링 결과 등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장염환자 급증 주의 당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겨울철 식중독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학교와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선정된 5개 병원을 포함한 총 10여 개 협력병원에 입·내원한 설사환자에서 원인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에는 4.1%(122건 중 5건)였던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12월에는 22.0%(168건 중 37건)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첫 주 현재 검출률은 21.6%(37건 중 8건)로, 당분간 지속·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0월말에서 11월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해 다음해 3~4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유행시기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이번 시즌은 지난해에 비해 약 6주간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균 24~48시간 잠복기를 거친 뒤 갑자기 오심, 구토, 설사를 동반한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킨다. 건강한 성인은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지속되다가 회복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탈수가 심할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의 구토물에 의한 비말감염, 환자와 접촉을 통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환자가 접촉한 식자재나 장난감 등과 같은 기구, 용기, 식품 등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태양광 발전수익	년 3,000만원~3,500만원
임대수익	년 250만원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서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